

평신도가 낮다

이 정 근 목사(LA 유니온 성결교회)

“저의 양들이니까 제가 책임지고 보살펴야지요”

그런 말을 했다가 평신도한테 꾸중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제서 목사님의 양이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목사들이 제 양이라고 하니까 제맘대로 괴롭히고 내어쫓고 자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속사포로 퍼붓는지 집사의 준엄한 눈고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주님의 양이지요. 그러나 저에게 맡겨 주셨으니 저의 양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졌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제가 세례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 혼줄이 났습니다.

“누가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았지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은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하셨을 뿐입니다.. 대통령의 선물을 비서가 전달했다고 해서 비서가 준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까?”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설명하는데 무어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신학을 배운 사람도 아닌데 매우 논리 정연합니다. 성경에 “너희는...세례를 주고...”하는 말씀풀어 보일 힘이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 평신도들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목사는 주일날 식당에 가는 것 예사로 아는데도 죽어라 하고 주일날은 외식 안하는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일년에 두 주는 휴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년 오십 이 주일을 개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커피를 그냥 마시는데 평신도는 커피, 주스, 심지어 냉수까지 마실 적마다 눈을 감고 감사기도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는 일주일에 한번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평신도들은 매일 거르지 않고 예배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번은 대학부를 목사에게 맡겼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석사학위를 얻은 젊고 유능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대학부의 수가 날마다 줄어갔습니다.

그가 그만두자 평신도에게 맡겼습니다. 다섯 명 모이던 대학부가 삼십명 가까이로 금방 늘어났습니다.

평신도의 믿음이 목사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교회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99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1권18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1999년11월 14일
☎262-3717/021-292-1639, ☒229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목사님! 데탕크 주세요

약으로 먹는 포도주도 문제가 되나요?

Q) 30대 중반 주부입니다. 빈혈과 저혈압으로 약도 먹고 병원에도 다녀 보았지만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가 포도주가 좋다는 얘길 듣고 밤에 마시고 잡니다. 마시면 잠도 잘 오고 다음날 아침에는 기운도 나고 한결 좋아진 것 같이 매일 조금씩 마십니다. 그런데 포도주 마신 후의 나쁜 기분을 내가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분명 저는 약으로 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도 죄가 되나요?

A)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앓고 있을 때 편지를 쓰면서 위장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약으로 마시라고 권한 일이 있습니다. 약으로 복용하는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딤후 5:23). 약하기는 하나 알코올에서 오는 '나쁜 기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느낄 이유 역시 없습니다.

감기 약을 먹어도 '나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많아진다든지 마시는 횟수가 빈번해져서 알코올 의존성이 생긴다면, 저혈압에는 도움이 되나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술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은 술과 함께 오는 방탕한 생활과 술 때문에 나타나는 무절제한 삶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서 포도주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유지되는 건강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예배

오후 1:30

다 같이

인도자

다 같이

다 같이

이지훈 집사

박세신 집사
(영락교회)

아동부

김성국 목사

다 같이

인도자

다 같이

인도자

김성국 목사

“Calvary”
1절:예배반주, 1,3절:다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79 장

17 (시 65편)

사도신경

창세기 1:26-31

‘우리는 이렇습니다’

410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좋은신 하나님”

영광송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찬송
Hymn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신앙고백
Apostle's Creed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기도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특송
Praising

주일학교
Sunday School

설교
Sermon

설교후 기도
Prayer

찬송
Hymn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응답송
Response Song

*위탁의 말씀

*축도
Benediction

(천교실에서 성도의 교재를 나누는 시간으로 계속 됩니다)

일자	기도	헌금봉헌	예배안내	tea time
7	서백화	이지훈	이지훈	여성교회
14	이지훈	송정섭	송정섭	남선교회
21	방성주	한건한	한건한	청년부
28	최우호	서배환	서배환	여성교회

‘99년도 교회표어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실천사항>

*신 양: 기초성경공부이수

*주일예배: 정장으로 예배참석

*생활: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하지도 맙시다

<등록규정>

*3주간 예배,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소식

- 매월 정기심방일정서를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번주간부터(18일) 수요일예배와 금요일예배를 통합하여 목요일예배로 드립니다
*명칭: 목요일예배
*성격: 성경공부와 기도
*시간: 저녁 7:30
*장소: 교회본당
- 기초성경공부 2기를 갖습니다.
*시간: 매주 수요일 저녁 7:30
*장소: 교회
대상: 1기를 마친 못한 성도와 청년(안내문 배부)
- 목회자 소식
지난 주간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 특송해 주신 박세신 집사(영락교회)께 감사드립니다.

공의와 사랑의 함수관계



공의 없는 사랑

사랑 없는 공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운 사랑”으로 대하십니다